

주민 주도 자치분권, 광산구 동 미래발전계획 고도화

주민 설계 청사진 담은 35개 사업 추진... 동별 연계·협력 등 생활 자치 확장

광주 광산구가 주민 주도형 자치분권 정책인 '동(洞) 미래발전계획'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

지난해 실행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동별 미래 청사진의 실행력을 높이며, 주민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시도가 마을 경계를 넘어 확장하도록 연계 모델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동 미래발전계획'은 자치구에 머무는 자치분권을 동, 마을로 확대해 생활 자치를 구현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4년 1호 결재로 시작돼 2년간 21개 동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 여건과 과제를 진단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마련한 청사진을 사업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광산구는 3년 차에 접어들어 '동 미래발전계획'의 핵심 방향을 주체적 주민 참여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 동 단위 생활 자치의 내실을 높인다. 21개 동에서 총 35개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비전을 완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다.

송정1동은 지난해 주민 속으로 마련한 주민 공동체 공간 '송정다락' 구상을 본격

실행한다. 공간 조성과 더불어 마을 소통·문화 거점 활용 전략을 구체화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진다.

신가동과 수완동은 반려동물 공존·상생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두 동은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주민 수요, 갈등 현안을 파악해 '반려견 순찰대' 운영(수완동), 반려동물 축제 및 마을 규칙 제정(신가동) 등을 추진했다.

광산구는 '동 미래발전계획' 수행 주축인 동별 주민참여단이 계획 수립, 사업 실행 등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뒷받침한다.

소규모 실행 사업을 지속하는 것과 더불어 다년도·중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며, 마을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로서 주민이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실행력이 확인된 동은 권역별 공동 과제 발굴, 주민·행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권역 연계형 사업으로의 고도화·확장을 도모한다.

2개 동 이상이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활성화해 동 단위 자치 실현이



구청 운영의 동력이 되는 상향식 광산형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한다.

대표적으로 첨단1동과 첨단2동은 공동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를 주제로 한 '첨단에 풍당(2026 그린 페스타 인 상암)', 주민 주도 스포츠마케팅 행사인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합찬 물살'을 열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증진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김준행 기자

전남도, 봄철 산불 인명피해 '제로화' 총력

산불조심기간 대응태세 점검... 초기진화·주민대피 공조 강화

전라남도가 봄철 건조한 기상 여건과 입산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초기진화·주민 대피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협의회에선 전남도와 서부지방산림청, 순천·영암국유림관리소, 전남소방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산림청·소방·지자체 간 초기 진화 공조 ▲산불 인명피해 우려지역 단계별 주민대피 체계 구축 ▲주태과 주요 시설 보호 ▲유관기관 인력·드론 활용 예방·감시 강화 등이다.

특히 지난 1월 광양 옥곡 산불(1단계 발령) 당시 주민 대피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과정의 미비점을 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산불 대응 시 '진화 체계'와 '주민 보호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 중심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올 봄철 기온 상승과 강

수량 감소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설 성묘객 입산 증가와 본격적인 영농철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따른 대형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전남에선 9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국(83건)의 11%를 차지했다. 이 중 4건은 야간 주택 화재가 산불로 확산한 사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림 연접지 건축물 등 산림 취약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산림재난대응단 28개 조 179명을 상시 운영해 초동 진화역량을 높이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부서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예측시스템의 시간 단위 위험구역 권고에 따라 단계별 대피를 할 방침이다. 불이 번지는 화선 도달 5시간 이내 지역은 즉시 대피, 8시간 이내 지역은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분류해 대피 대기 조치를 한다. /염선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민안전보험'을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100만원)' 항목을 추가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보장항목은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한다

5개 자치구 보장항목 맞추고 등록외국인 대상 홍보 강화

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5만

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나 광주시 안전정책관(613-4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구민안전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업을 통해 자치구 간 보장 항목과 금액을 최대한 통일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맞췄다.

광주시는 광주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외국인 지원기관 및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비 절감 효과를 이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했다. 서구는 세정아울렛 일원이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해 지정 승인됐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인, 임대인, 지자체가 상생 협약을 체결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서구는 세정아울렛 상권이 유통환경 변화와 온라인 소비 확산, 인근 대형 상권과의 경쟁 심화로 매출과 방문객이 감소한

서구, "세정아울렛에서 온누리상품권 쓰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최대 50억원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가능

점을 고려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적극 추진했다. 서구는 상무로자율상권조합(이사장 김상목)과 함께 상권 실태조사와 상인 간담회를 거쳐 2025년 8월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임대료 인상 자제와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을 담은 상생 협약에도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세정아울렛 상권은 전체 구역의 절반 이상이 상업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점포 수 100곳 이상, 매출액 및 유동 인구 감소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세정아울렛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공동 판촉, 브랜드 육성, 임대료 안정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장기 상권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5년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구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설 명절 기간 귀성객과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 혁신을 통해 세정아울렛이 다시 찾고 싶은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가 골목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1면에서 이어짐

20대 후반에 들어선 세 번째 올림픽에서도 최민정은 건재했고, 신화를 이룩했다.

마냥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10대부터 세계 최강자로 군림했지만 그도 슬럼프를 겪었다.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느끼는 중압감, 에이스라는 책임감에 눌러 버거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19세였던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직후가 첫 고비였다. 최민정이 "노력한 만큼 경기가 쉽게 올라오지 않았다"고 회상하는 시기다.

어린 나이의 최민정이 첫 고비를 돌파한 방법은 혹독한 훈련이었다. 최민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훈련량을 늘리고, 안되면 될 때까지 했다"고 전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대표팀 동료인 심석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전 당시 최민정을 고의 충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마음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스케이트와 끈을 묶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는 최민정은 2022-2023시즌을 마친 후 결국 태극마크를 잠시 내려놓기로 했다.

잠시 대표팀을 떠나있었을 뿐 더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린 시간이었다. 최민정은 1년 동안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연구와 훈련에 몰두했다.

대표팀으로 뭘 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한층 효율적으로 훈련할 방법을 연구했다.

1년을 쉬고 돌아온 최민정은 표정도 달라져 있었다. '얼음 공주'에 가까웠던 그는 1년을 쉬고 돌아와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 듯 한층 잘 웃었다.

휴식 후에도 최민정은 건재했다. 2024-2025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태극마크를 되찾은 최민정은 그가 대표팀을 떠나있던 사이 대표팀 에이스 역할을 한 절친한 후배 김길리(성남시청)와 함께 여자 대표팀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남녀 대표팀 주장을 맡은 최민정은 '캡틴의 품격'도 아낌없이 보여줬다.

여자 계주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자 아픔을 잠시 묻어두고 심석희와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고의 충돌 의혹으로 심석희와 관계가 나빠진 이후 계주에서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었는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심석희의 터치를 받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는 여자 대표팀의 계주 금메달로 이어졌다.

전 경기를 뛰면서도 훈련을 거르지 않으며 숏선수범했고, 자신이 1000m 결승에 오르지 못해 속상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김길리의 같은 종목 동메달 획득을 축하했다.

빙판 위에서 신화를 이룬 최민정은 빙판 밖에서도 '전설'이었다. /뉴시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